

29일~31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대학·계열에 따라 수능 반영점수 상이 가산점 활용 등 최적 지원전략 찾아야

202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각 대학은 이 기간 중 최소 3일 이상 입학원서를 접수하며, 수험생들은 접수 첫날인 29일부터 실시간 경쟁률 변화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34만9289명의 19.8%인 6만9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416명 감소한 규모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4만6442명(67.0%)을 선발해 비수도권 대학 2만2830명(32.9%)보다 두 배가량 많다. 정시 모집 인원이 수도권 대학에 여전히 집중된 구조다. 전형유형별로는 수능위주전형이 6만387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실기·실적위주전형 4565명 ▲학생부위주(교과)전형 357명 ▲학생부위주(종합)전형 287명 ▲기타전형 187명 순이다. 정시모집에서 수능위주전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군별로는 가군에서 136개 대학, 나군 146개 대학, 다군 130개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험생은 모집군별로 1회씩, 총 3회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이후에는 한 곳만 최종 등록해야 한다. 군별 전형 일정은 ▲가군 2026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나군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다군 1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군별 지원 및 합격 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원 전략 수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유투이미지

일부 수능 군·모집단위 변경... 산업경영융합학부 '정원 외 인원'



정원 내 1208명, 정원 외 143명 선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다군' 변경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351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선발인원은 1208명으로, ▲가군 416명 ▲나군 566명 ▲다군 226명을 모집한다. 또한 정원 외 전형에서는 기초생활맞차상위 전형 64명, 농어촌학생 전형 79명 등 총 143명을 선발한다.

올해 가장 주요한 변동 사항 중 하나는 정원 내 모집인원에 대한 수능 군 변경 관련 사항이다. 기존 '다군'에서 5명 선발하던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원에 대해 올해는 '나군'에서 선발이 이뤄지며, 전년도 '가군'에서 선



발하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인원은 올해 '다군'에서 선발한다.

학사 구조 개편에 따른 모집단위 및 정원 변경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화공학부가 올해는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 단위에서 모집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신산업융합학과와 K뷰티산업융합학과가 합쳐져 공과대학 산업경

영융합학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산업경영융합학부는 정원 내 모집인원 없이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을 진행하니 유의해야 한다. 사회과학대학융합전공학부는 모집 정원이 지난해 74명에서 76명으로 상향됐으며 이중 정시 '나군'에서 2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 기초생활맞차상위와 농어촌학생 전형도 일부 정시로 선발한다. 기

초생활맞차상위 전형 지원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해야 한다.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연속해 이수하고, 해당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 이수하고 해당 기간동안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 정시 계열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및 방법을 살펴보면, 언어중심(A)은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문과대학 전체 학과, 사범대학 중 일어교육과, 교육공학과, 영어

교육과, 예술디자인대학의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 매체연기학과다.

수리중심(B)은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하며, 이에 해당되는 모집단위는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다.

예체능은 국어 45%, 영어 25%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 중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30% 반영한다. 해당되는 모집 단위는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와 매체연기학과를 제외한 예술디자인대학의 학과들,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다.



박종효
입학처장

영어 2등급·한국사 4등급까지 만점... 계열별 수능 반영비율 달라



영어·한국사 '등급별 감점 방식'
자연계열 과탐 응시자에 가산점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정시모집에서 총 2415명(전체모집인원의 44.9%)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수능 위주전형에서 2217명을, 실기위주전형으로 198명을 선발한다. 수능위주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7명 감소했다.

경희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기존의 절대평가 등급을 '수능 영역별 비율 반영 방식'에서 '등급별 감점 방식'으로 전환했다. 영어 2등급까지는 만점 처리해 감점이 없어, 어렵게 출제된 영어 과목의 부담이 적다. 영어 과목은 3



등급 이하, 한국사는 5등급 이하의 경우 총점에서 차등으로 감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문, 사회, 자연, 예술·

체육 계열의 모집 단위를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 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달라 표준점수의 단순 총점이

같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에 따라 수능 환산 점수에 차이가 있다.

수능 영역별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탐구 영역은 본교 자체 산출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탐구 영역의 백분위변환표준점수는 수능성적 개별 통지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문계열 수능영역을 반영하던 한의예과(인문)는 사회계열 수능영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한의예과(인문)의 정시 수능 반영 성적은 국어 35%, 수학 35%, 탐구(2과목) 30% 비율로 산출한다.

기존에 인문계열 사회탐구 응시자에 부여하던 가산점은 2026학년도 정시부터 폐지됐다. 자연계열 응시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학탐구 응시

자에게 과목당 4점씩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자유전공학부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경희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대교협, 대학어디가)에 최근 3년간 정시 입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최근 3년간(2023~2025학년도)의 경쟁률과 총원율, 최종 등록자 70%의 합격선 백분위 점수뿐만 아니라 상위 80%의 수능 과목별 백분위 평균 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에 따라 최종 등록자의 교차지원을 알 수 있는 수학과 탐구선택과목응시 비율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최진무
입학처장